

생명윤리와 가톨릭의 종교교육 - 문제중심학습 모형 개발을 중심으로* -

김 나 진

가톨릭대학교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중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일환으로서 생명윤리교육을 어떻게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성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 종교 교육에 있어서 생명윤리교육은 (1) 바른 생명관과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하며 (2) 건강한 자아정체성과 자기존중감을 갖도록 하며 (3) 과학기술, 특히 생명과학기술이 초래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한 민감성과 비판의식을 길러주어야 한다. 이러한 생명윤리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과정을 잘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생명윤리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교육 이론을 소개하였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과 책임의 성 교육 교육과정”의 예를 들어 문제중심학습 모형(PBL)을 생명윤리교육에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종교교육 내에서의 생명윤리교육이 본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영성교육과의 협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핵심주제어: 생명윤리, 종교교육, 가톨릭 종교교육, 문제중심학습, 청소년 성교육

I. 서론

오늘날 생명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그것이 지니고 있는 많은 윤리적 함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물질주의적 사고의 유행으로 인해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 1994년 당시 교황 바오로 2세는 ‘교황청 생명학술원’을 설립하면서 발표

* 본고는 한국종교교육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2014년 5월 16일, 가톨릭대학교)에서 발표된 논문임.

한 자의교서 〈생명의 신비〉를 통해 현대 문화에 담겨져 있는 ‘죽음의 문화’를 지적했다. “오늘날 과학과 기술의 진보가 제공하는 놀라운 성과들은 생명의 근원과 기원에 대한 개입이라는 매혹적 가능성의 지평을 열어 주는 한편,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 위험을 내포하는 바, 여러 가지 새로운 윤리적 차원의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¹⁾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명의학 및 연구를 다루는 법률의 정비, 의학 및 의료분야의 감독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위한 생명윤리교육의 구상이 착실히 준비되어야 한다.²⁾ 즉 어린 시절부터 학교 교육 현장에서 체계적인 생명윤리교육 활동을 통해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생명윤리 문제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결정 능력, 그리고 그에 대한 윤리적 실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가톨릭 종립학교에서 생명윤리교육은 종교 교육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종립 학교는 자신의 종교적 지향을 교육과정 안에 스며들게 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지적, 기술적 역량뿐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하는 것을 그 목표로 삼고 있다.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책임의식, 그리고 현대의 생명과학 기술과 의료가 만들어 놓은 새로운 환경 속에서 바른 판단과 실천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성숙한 신앙인의 필수적인 덕목이다. 그리고 생명윤리가 다루는 주제들 중 상당수가 객관적 학문적 주제라기보다는 삶과 죽음, 몸과 생명과 깊이 관련된 실존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종교 교육과 연계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다. 즉, 바른 생명윤리교육은 종교 교육의 목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며, 역으로 잘 구성된 효과적인 종교교육은 생명윤리교육의 내용과 가치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윤리교육은 종립 학교에서 종교교육의 일부로서, 또는 독립적인 과목으로서 제공될 수 있지만 어느 쪽이든 간에 상호 교육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가톨릭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일환으로서 생명윤리교육을 어떻게 시행할 수 있는지를 문제중심학습 모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나아가 이 모형을 “생명과 책임의 성교육 교육과정”에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1) Motu Proprio “Vitae mysterium”, Pope John Paul II establishes the Pontical Academy for Life, L'Osservatore Romano, N. 10, 1994년 3월 9일, p. 3.;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의 회보』, 제81, 1994년 5월 1일.; 이동익, 『생명, 인간의 도구인가』(서울: 바오로딸, 2004).

2) 추정완, 『청소년을 위한 생명윤리교육 내용에 관한 연구』 『생명윤리정책연구』제2권(서울: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2008), 257쪽.

Ⅱ. 가톨릭학교의 청소년기 종교교육을 위한 생명윤리교육

1. 가톨릭교회의 생명관

가톨릭교회가 바라보는 ‘생명’의 관점은 첫째, 생명의 주관자는 하느님이시라는데 바탕을 두고 있다. 성경의 창조 사상은 궁극적으로 모든 피조물, 특히 생명은 하느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둘째, 성경과 그리스도 신학은 무엇보다 인간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물론 인간 이외의 생명 또한 소중하지만 특히 가톨릭교회는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셋째, 가톨릭교회는 하느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긍정하고 모든 생명이 살아가는 생태계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성경은 하느님이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다. 하느님의 선물인 이 세상에 대한 지배권은 세계를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세상을 돌보라는 것이다. 넷째, 가톨릭교회는 인간의 생명은 현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을 통해 인간은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가톨릭교회가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핵심적인 신앙이다.³⁾

이러한 생명관에 입각한 가톨릭교회의 생명윤리는 성경과 자연법,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을 표명하는 각종 문헌들에 근거하여 여러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Kevin에 따르면 가톨릭 생명윤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으로 정리될 수 있다. ①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개인의 존엄성-즉 인간존엄성의 증진, ② 공동선(common good)의 추구, ③ 사회정의, ④ 관리인의 원칙(principle of stewardship)이다. 오늘날 가톨릭교회는 이러한 보편적인 원칙들에 근거하여 생명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⁴⁾

2. 종교교육의 방향

가톨릭교회의 종교교육은 무엇보다, 가톨릭교회의 진리를 가르쳐서 학생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 형성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가톨릭계 학교가 수행하는 종교교육의 목적은 교회문헌들 안에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타난다. 이는 지식과 진리, 이성과 신앙, 지성과 사랑의 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지식과 진리의 통합이란 인간의 본성 안에 새겨진 진리에 대한 갈망과 염원을 모아 과학과 물질만능주의의 사고로부터 참다운 ‘지식의 분별력’을 회복하는 것이며, 이성과 신앙의 대화는 각기 다른 교과목들로 하여금

3) 조규만, 「신학적 관점에서 본 생명」 『생명윤리』 제2권(서울: 한국생명윤리학회, 2001), 28-34쪽.

4) 이상목, 「가톨릭의 생명윤리」 『철학논총』 제34집(새한철학회, 2003), 407-427쪽.

더 높은 차원의 진리와 일치하도록 돕는 것이며, 지성과 사랑의 통합이란 교육되는 모든 지식들이 인간의 윤리적, 도덕적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늘 분석하고 판단하게끔 하는 것이다.⁵⁾ 이와 같이 지성과 신앙, 사랑이 영원한 진리의 차원에서 통합되지 않는다면 모든 교육적 행위는 무가치하고 불의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종교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가톨릭교육성은 「학교 종교교육에 관하여 주교회의 의장들에게 보내는 회람」(2009.5.5)에서 “도덕교육과 종교교육은 개인적 사회적 책임이나 그 밖의 덕목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고, 나아가 사회의 공동선에 이바지합니다.(10항)”이라 선언하며 가톨릭 학교에서 추구하는 종교교육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가톨릭 학교의 성격과 특징에 관한 포괄적인 지침서인 「가톨릭 학교에 관한 지침」은 가톨릭 학교의 사명을 보다 명확한 언어로 강조하였다. 「지침」은 가톨릭 학교의 사명을 ‘학교적 성격’에서 나오는 전인교육의 사명과 ‘가톨릭적 성격’에서 나오는 특수 사명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특수 사명과 관련하여 “가톨릭 학교의 임무는 근본적으로 문화와 신앙의 통합이요 신앙과 생활의 통합이다. 전자는 다양한 학문으로 특화된 인간 지식의 모든 측면이 복음의 빛에 비추임 받아 통합됨으로써 달성되고, 후자는 그리스도 신자다운 고유한 덕성을 성장시킴으로서 달성됩니다.(37항)”라고 설명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교육 현장에서 교육과정의 통합운영을 권장하고 있다. 이는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에 새로운 함의를 갖는데 이제까지 독립된 형태로 이루어지던 종교교육을 ‘교과영역+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을 연계하는 재구성 절차를 통해 통일성 있는 종교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종교교육은 지적인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차원으로 이어져 전인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또한 이렇게 재구성한 종교 교육과정은 공교육의 요구(전인양성)와 종립학교의 이념구현(종교적 전인 양성)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⁶⁾ 그러므로 앞으로의 과제는 가톨릭교회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효과적인 종교교육을 어떻게 제공하는가이며, 생명윤리교육은 통합적이고 창의적인 종교교육과정의 개발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서 기능할 것이다.

3. 종교교육에서 청소년을 위한 생명윤리교육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자아가 형성되고 인격이 계발되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이다. 앞서 언급한 가

5) 최준규, 「가톨릭계 학교의 종교교육: 개념, 목적, 방법」 『종교교육학연구』 제21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5), 316-322쪽. 재인용

6) 구분만, 「공교육에서 가톨릭 학교의 종교교육 방향 모색」 『기독교교육정보』 제30집(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2011), 79-80쪽. 재인용

톨릭교육성의 「학교 종교교육에 관하여 주교회의 의장들에게 보내는 회람」은 “인간의 초월적 차원에 열린 인간학적 개념을 필요로 하는 종교교육은 학생들의 자아형성과 인격 계발에 절대 필요한 요소인 신앙과 학문적 소양 사이에 조화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요소(제10항)”라고 천명하고 있다. 청소년기는 육신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남녀의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자아를 인식하기 시작하며, 실존과 세계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나는 누구이며, 왜 존재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는 청소년기에 겪는 중요한 물음이다. 한편 청소년기는 정의감이 충만하고 선을 지향하지만, 한편으로는 잘못된 욕망에 휩쓸리거나 잘못된 가치를 받아들이기 쉬운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반되는 충동을 잘 조절하면서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종교교육의 임무이다. 특히 청소년기는 성(性), 알콜, 약물, 폭력, 왕따와 자살 등의 일탈행위에 대해 취약하기 때문에 건전한 생명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청소년기는 미래 사회를 살아갈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도덕적 소양을 갖추는 시기이기도 하다. 과학기술, 특히 생명과학과 의학의 급속한 발달은 청소년들이 살아야 할 미래의 환경을 오늘날과 매우 다른 것으로 만들고 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온라인 게임 등의 매체는 청소년들을 쉽게 유혹하며 이들은 성인들보다 대단히 쉽게 이러한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나 그 부작용과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 오늘날의 청소년 문제는 잘못된 가치관과 오남용된 첨단 기술이 만난 결과인 경우가 많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확산은 자칫하면 과학기술만능주의, 또는 물질만능주의로 빠질 수 있고, 인간이 과학기술을 통제하기보다 그로 인해 소외되고 지배를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는 건전한 가치관의 확립은 청소년기에 대단히 중요하며, 종교교육은 그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청소년기 종교교육에 있어서 생명윤리교육은 ① 바른 생명관과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하며 ② 건강한 자아정체성과 자기존중감을 갖도록 하며 ③ 과학기술, 특히 생명과학기술이 초래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한 민감성과 비판의식을 길러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모든 중요한 가치가 세속적, 물질적 세계를 넘어서서 영원하고 초월적인 하느님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영적 감수성을 길러주는 것이 생명윤리 교육의 전제이다.

Ⅲ. 종교 교육과정 안에서의 생명윤리교육

성공적인 교육은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든 주의 깊은 계획을 필요로 한다. 계획이 없으면 교육과정 활동은 아마도 혼란과 갈등의 연속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계획을 개념화하는 방식은 현재와 미래의 쟁점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달라진다. Tyler(1949)⁷⁾가 제시한 네 가지 기본 원리인 교육 목적 및 목표, 학습 경험 선정, 학습 경험 조직, 평가에 대한 사고

를 하지 않고 특정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설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 개발은 학교 및 학교 구성원들이 특정 교육 목적을 인식하도록 만드는 다양한 과정으로 이루어진다.⁸⁾

이 장에서는 교육과정의 주요 구성 요소인 교육 목표, 교육 내용, 학습경험 및 활동, 그리고 평가를 중심으로 종교교육 안에서의 생명윤리 교육과정 개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생명윤리교육의 목표

생명윤리교육이 추구해야할 궁극적인 방향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생명윤리교육의 목적은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하느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물을 긍정하신다. 성경은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보시니 좋았다”(창세 1,31)고 거듭 표명한다. 무엇보다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평가하신다. 또한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본성 곧 그분의 영원한 힘과 신성을 조물을 통하여 알아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로마 1,20)라는 구절에서 보면, 인간 생명의 기원은 부모의 성적 결합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하느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됨을 말한다.

둘째, 생명윤리교육은 본질적으로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 인식과 신념이 있어야 한다. 하느님께서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라고 표현하셨고,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창세 1,27)라는 구절을 보면 인간은 하느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몸과 영혼의 연합으로 이룩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模像)’이기 때문에 존엄성을 갖는다.

셋째, 생명윤리교육을 완성하는 것은 실천이라는 점을 인식시키고 도덕적 사고를 통한 실천의 습관화를 강조해야 한다. 덕성의 증진과 생명존엄을 위한 책임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공동선을 증진해야 한다.⁹⁾

7) 전통적인 교육과정 개발 모형으로 잘 알려진 타일러의 개발 모형은 그가 1949년에 출판한 『교육과정과 수업의 기본원리(Basic Principle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라는 책에 잘 제시되어 있다. 이 책에서 타일러는 네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 질문은 오늘날까지 학교교육과정 개발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가 되었다. 그는 교육과정 탐구에 관계하는 사람들은 ① 학교의 교육 목적 및 목표, ② 그 목적과 관련된 교육적 경험, ③ 학습 경험의 조직, ④ 목적의 평가를 먼저 정의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8) 장인실 외, 『교육과정 - 기초·원리·쟁점』(서울: 학지사, 2007), 참조.

9) 조규만, 앞의 글, 28-31쪽; 유경동, 『생명윤리의 공정영역과 종교의 역할』 『생명윤리정책연구』제2권(서울: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2008), 238-241쪽; 추정완, 앞의 글, 258쪽; 양재섭, 구미정, 『대학교육현장에서의 생명윤리교육: 대구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생명윤리』제10권(서울: 한국생명윤리학회, 2009), 1-2쪽.

2. 생명윤리교육 내용 선정

중등학교의 생명윤리교육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할 영역별 내용과 주제들은 〈표 1〉과 같다. ‘인간의 생명 존중’의 내용 범주에 속하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내용과 자살, 피임의 주제부터 ‘첨단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인식’의 내용 범주에 속하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 배아복제, 줄기세포배양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들이 이에 포함된다.¹⁰⁾ 이렇듯 ‘생명’과 관련된 윤리 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 법, 의료 등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여러 분야에서 직면하게 되는 것이므로 학교 현장에서의 생명윤리교육은 범교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¹¹⁾

〈표 1〉 생명윤리교육의 영역별 내용과 주제들¹²⁾

영역	내용범주	다루어질 수 있는 주제의 예
생명 존중 윤리	1. 자신(인간)의 생명 존중	인간의 존엄성, 자살, 일상생활에서의 안전, 실험 시 안전, 질병의 예방과 치료, 흡연·음주·약물의 오남용, 피임
	2. 다른 생물의 생명 존중	동·식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 동·식물의 복지 및 생명 존중, 동물 실험의 필요성
	3. 환경과 관련된 생명 존중	동·식물의 서식처 파괴, 오염 물질의 배출
생명 의료 윤리	4. 출생, 죽음, 성 결정과 관련된 생명윤리	낙태, 시험관 아기, 유전자 검사, 죽음의 기준·뇌사, 식물 상태·생명장치·안락사
	5. 질병의 치료와 관련된 윤리의식	장기·조직 이식, 환자의 의료 건강 정보 유출, 환자의 알 권리, 질병에 대한 관점과 태도, 의료 자원의 공정한 사회적 분배
생명 공학 윤리	6. 첨단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인식	인간 게놈 프로젝트, 인간 배아 복제·줄기 세포 배양, 복제 생물, 유전자 조작 생물(GMO)
	7. 생명 공학 연구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인식	생명공학 연구의 안전성,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나 임상 실험, 생명 공학 연구 단계의 타당성, 생명 공학 연구 성과에 대한 비판적 태도

위 표에서 제시한 생명윤리 영역의 다양한 주제들 가운데 특히 인간의 존엄성, 낙태, 생태윤리(자연보존), 자살 등과 같은 주제들이 청소년 종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내

10) 박인옥 외, 『생명윤리와 생명윤리교육에 대한 중·고등학교 교사의 인식 조사』 『한국생물교육학회지』 제33권(한국생물교육학회, 2005), 491-494쪽.

11) 박지영 외, 『교과서에 제시된 생명윤리교육 실태-국어, 도덕, 사회, 과학, 기술·가정 교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평가연구』 제8권(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152-158쪽.

12) 박인옥 외, 앞의 글, 494쪽.

용이라 사료된다. 첨단 생명공학윤리는 청소년들에게는 어렵고 전문적인 주제이므로, 보다 시급하고 현실에서 자신과 관련을 지을 수 있는 주제부터 시작한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3. 생명윤리교육 교수-학습 전략

학생들의 동기유발과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생명윤리 교육을 위해서는 강의와 토의 및 토론, 발표와 같은 기본적인 교수-학습 전략으로부터 ‘나의 성장 달력 만들기’, 신문을 활용한 NIE(Newspaper In Education) 활동, 역할극, 동영상 제작 등 다양한 활동과 교육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수-학습 전략은 교실 안에서(In-Class) 이루어지는 방식이지만, 생명윤리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생명에 대한 태도의 변화와 덕성의 함양을 위해서는 교실 밖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꽃동네 등과 같은 요양 시설에서의 봉사체험, 병원과 호스피스 병원에서의 봉사체험, 장례미사 참석 등이 생명윤리 교육의 목적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¹³⁾ 1997년에 발표된 교회문헌 ‘제삼천년기의 문턱에 서 있는 가톨릭학교’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과거에는 아동 연구와 교사 양성에 집중되었던 교육학이 그 범위를 넓혀 삶의 여러 단계와 학교 밖의 다양한 영역과 상황을 포함하게 되었다. 새로운 필요조건들이 전통적인 것들 외에도 새로운 내용, 새로운 능력, 새로운 교육 방법에 대한 요구를 낳게 하였다(2항)”고 하였다.¹⁴⁾

인지적 학습(cognitive learning)은 교실 수업으로 가능하지만, 태도의 변화와 덕성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비인지적 학습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은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통해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활동이 그저 활동으로만 끝나서는 소기의 학습 성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활동과 체험의 뒤에는 언제나 성찰(reflection)이 수반되어야 한다. 성찰은 또래들 간의 토론하기와 감상문·소감문 쓰기, 성찰일지 작성 등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직접적인 체험이 어려울 경우에는 영화나 동영상 등의 관람과 토론을 통해서 간접 체험의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좋은 영상작품이나 문학작품은 직접 체험 못지 않은 교육 효과를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 환경과 교육 자원, 학생들의 관심사, 그리고 교사의 관심사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이러한 통합적인 교육

13) 추정완, 앞의 글, 271-272쪽; 조주인 외, 「생명윤리 주제를 활용한 토의 수업의 효과」, 『한국생물교육학회지』 제33권(한국생물교육학회, 2005), 387-388쪽; 김평만 외, 「의학교육에서 가톨릭 정신의 구현-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움니버스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인간연구』 제21호(부천: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11), 100-102쪽.

14) La Scuola Catholica Alle Soglie del Terzo Millennio, 1997년 12월 28일; 「제삼천년기의 문턱에 서 있는 가톨릭 학교」,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제13호(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0년 2월 23일), 195쪽.

은 일개 교사나 종교교육 담당 성직자의 힘만으로는 시행이 어려우므로 관련된 각 과목 담당 교사, 그리고 체험을 위한 시설 종사자등 간에 원만한 협력 관계가 가능해야 한다.

4. 생명윤리교육 평가

교육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 학습자의 학습과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개발에 최대한 도움을 주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데 있다. 교육평가 영역은 인간의 행동 특성의 세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지식과 관련된 인지적 영역(cognitive domain), 마음과 관련된 정의적 영역(affective domain), 그리고 신체의 기능과 관련된 심동적 영역(psychomotor domain)이다.¹⁵⁾ 그런데 종교교육 안에서의 생명윤리교육은 일단 신체의 기능과는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크게 인지적 영역(지식영역)과 정의적 영역(태도영역)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생명윤리교육에 있어서 평가는 교수-학습 전략에 따라 달라진다. 지식영역에 속하는 평가로는 서술형 시험, 과제 평가, 보고서, 소감문, 독후감, 감상문 등의 평가 자료를 사용한 평가가 있고, 태도영역에 속하는 평가로는 출석, 참여도, 자기평가, 동료평가, 관찰평가(교수자), 성찰일지 등이 있다.

종교교육에서의 생명윤리교육은 지식뿐만 아니라 태도와 같은 정의적 측면에 더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생명윤리교육의 교육성과에 대한 평가는 종합적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평가 대상(학생)이 산출한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지필검사로 평가방법을 국한시키지 말고 관찰, 면접, 수행평가 등 다양한 평가방법을 동원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체험과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발전 과정을 볼 수 있는 포트폴리오 평가가 바람직하다. 포트폴리오는 하나 이상의 영역에서 학습자들의 진보가 드러나는 학습결과에 대한 모음집으로서 수행평가 방법의 하나지만, 포트폴리오 평가라는 용어로도 종종 사용된다. 이는 포트폴리오가 학습자들의 자기평가를 중요한 판단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수행평가 방법들과 구별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학습자들은 자신이 체험한 모든 교육적 경험과 학습 성과물을 직접 제작하고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일련의 절차를 통해 자신의 학습 결과를 스스로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¹⁶⁾

포트폴리오 평가의 장점은 학생의 발전 과정을 파악할 수 있으며, 지식의 측면뿐 아니라 태도의 측면, 특히 생명윤리교육에서 중요한 자기성찰의 발전과정을 함께 평가할 수

15) 성태제, 『현대교육평가 4판』(서울: 학지사, 2014), 참조.

16) 김소영, 『구성주의 학습 환경에 적합한 평가전략: 참평가와 즉각적 피드백』 『교육공학연구』제23권(서울: 한국교육공학회, 2007), 34-40쪽.

있다는 데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학생에게 실제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을 유도하며, 자신의 학습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는 자기주도형 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는다.

5. 생명윤리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교육과정은 한번 개발하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환경과 교육자, 그리고 학습자의 끊임없는 피드백을 통해 발전해 나가는 살아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어떤 교육과정도 완벽한 것은 없으며, 특히 생명윤리 교육과정은 다양한 교과와 다양한 교사가 참여하며 다양한 학습활동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Stufflebeam(1971)이 제시한 CIPP모형¹⁷⁾에 의거한 교육과정평가는 해당 교육과정을 맥락(context), 투입(input), 과정(process), 산출(product)로 구분하여 각각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애초 설계한 교육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였는지, 필요한 교육자원은 제대로 제공되었는지, 교육과정의 진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학생과 교사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등을 평가하여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

IV. 문제중심학습 모형을 적용한 생명과 책임의 성교육 과정 개발

청소년들의 관심과 동기유발을 고려하여 종교교육 안에서 ‘생명과 책임의 성교육’ 과정을 생명윤리교육 개발 예시로 제시하였다. 청소년기에는 성에 관심을 가질만한 시기이고, 실제 피임과 낙태, 청소년 미혼모 등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성교육은 여러 다른 주제로 확장될 수 있고 다양한 교육방법론이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가치관 형성에 중요하므로 성교육의 주제를 예시로 하였다.

이러한 교육과정 개발에 적합한 모형으로 구성주의 학습이론이나 교수법의 대표적 모형이며 또한 통합교육과정인 문제중심학습(PBL)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문제중심학습 모형

문제중심학습(Problem based Learning, PBL)은 ‘실생활의 문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수업을 위한 교육적 접근으로서, 학습자들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 속에서 교과의 개념뿐만 아니라 비판적, 창의적 사고기능을 신장시키고, 학습에 동기를 부여하며, 학생들의

17) Stufflebeam, L. D.(1971), The relevance of the CIPP evaluation model for educational accountability.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Administrators.

주체적인 문제해결 및 협동학습을 유도하는 등의 다양한 장점을 가진 학습형태로 소개되어 왔다.¹⁸⁾

실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문제와 유사한 상황의 제시를 통해 수업이 시작되는 PBL은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탐색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찾음으로써,¹⁹⁾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기르며, 소그룹 활동을 통해 협동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지금까지 실행된 PBL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PBL 수업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문제해결능력, 지식습득능력 등의 인지적 측면과 만족도, 태도, 동기 등 정의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²⁰⁾

Edgen과 Kauchak(2001)은 문제중심학습이 단순한 하나의 교수전략이 아니라 문제해결, 탐구, 프로젝트중심 교수(project based teaching), 사례중심 수업(case based instruction)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교수전략군이라고 진술한다. Torp와 Sage(2002)는 문제중심학습은 교육과정 조직과 교수전략이라는 두 가지 상보적 과정이 결합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문제중심학습에서는 현실 속에서 지식들이 학습자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존재하는 비구조화된(ill-structured) 문제, 즉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실제 문제를 다룬다. 이러한 실제적인(authentic) 문제는 잡지나 기사, 신문 칼럼,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책 등과 같은 우리 주변의 수많은 원천에서 찾을 수 있고, 주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문제거나 논쟁이 되는 정책이거나 해결을 필요로 하는 이슈 등에서 발생한다. 문제의 유형은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문제(설명적·인과관계적 지식), 어떠한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방법과 전략을 탐구하는 문제(절차적·전략적 지식), 사실 문제(선언적·서술적 지식), 개인의 도덕적 딜레마 문제(개인적·주관적·규범적 지식)로 구분할 수 있다. ‘문제개발 과정’은 ① 교육과정 고려하기, ② 학습자 특성 파악하기, ③ 잠재적 문제선정과 문제지도 그리기, ④ 역할과 상황 설정하기, ⑤ 문제 작성하기의 절차로 이루어지며, ‘교수-학습과 평가 과정’은 ① 문제 만나기(동기유발-문제제시-문제파악), ② 문제해결 계획 세우기, ③ 탐색 및 재탐색하기, ④ 해결책 고안하기, ⑤ 발표 및 평가하기의 기본단계들로 이루어진다.²¹⁾

이러한 PBL수업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 혹은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구조화되고 실제적 상황과 연결된 PBL 문제 개발/선정 및 조직의 어려움, 둘째, PBL수업 도중 교사의 개입 정도 및 학습부진학생들에 대한 배려 정도, 셋째, 비 구성주의적인 교육환경 개선, 넷째, PBL수업 tutor의 표준화(진행과정, 평가방법 등) 등이 있다.²²⁾

18) 조연순 외, 『문제 중심 학습(PBL)을 위한 문제개발 절차 연구: 초등과학 교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제21권(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3), 215-216쪽.

19) 조연순, 『문제중심학습의 이론과 실제』(서울: 학지사, 2006), 참조.

20) 김경희, 조연순, 『문제중심학습(PBL)의 수업 단계별 학습활동의 특성과 교육적 의미 탐색-초등 과학 수업을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 제21권(한국초등교육학회, 2008), 270쪽.

21) 조연순, 앞의 글, 15-26쪽.

22) 박경원, 『문제중심학습(PBL)의 교실 적용 난점과 해결 방안 탐색』 『교육과정평가연구』제15권(서울: 한

2. 개발 예시

청소년들의 관심과 동기유발을 고려하여 종교교육 안에서 ‘생명과 책임의 성교육’ 과정을 생명윤리교육 개발 예시로 제시하였다.²³⁾ 『성교육에 관한 교황청 교육성 지침-인간적 사랑에 관한 교육 지침』(1983. 11.1)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그리스도교 교육에 관해서 다루면서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에게 ‘적극적이며 현명한 성교육’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명시하였다.

1) 문제개발 절차²⁴⁾

수업 전에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과정으로서 ‘문제와 관련하여 계획하는 모든 활동, 즉 아이디어 도출부터 학생들에게 제시할 형태로 문제를 작성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이다.

① 교육과정 고려하기

문제중심학습에서 문제의 역할은 교육과정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므로 교육과정 목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고려할 대상은 국가수준, 지역수준 또는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이 될 수 있다.

- 학교현장에서 청소년의 성교육은 보건교육과정, 국어교육과정, 과학교육과정, 종교교육과정 등 여러 교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 대체적인 성교육이 피임교육으로 진행되는데, 우리는 왜 피임교육이 생명과 책임의 교육이 아닌가를 종교교육 안에서 강조하고자 한다.

- 그러므로 가톨릭교회는 청소년들에게 정결의 중요성을 교육하고자 한다.

[교육목표]

청소년들은 이 교육과정을 통하여 생명의 소중함과 책임 의식을 내면화 할 수 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폄하되고 있는 성에서의 정결이 왜 중요한지 이해한다.

[세부목표]

- 청소년들이 디지털 매스미디어(대중문화, 음란물)를 통해서 쾌락주의적 성의식이 형성되었음을 인식한다.

국교육과정평가원, 2012), 81쪽.

23) 예시 내용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성교육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24) 조연순, 앞의 글, 83-94쪽. 참고.

- 성이 쾌락과만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거대 연속체(성, 사랑, 쾌락, 생명, 임신, 출산, 양육, 부모됨, 가족제도, 사회제도)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임을 안다.
- 성교육에서 피임보다 책임이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닫는다.
- 정결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교리가 아니라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한 길임을 깨닫는다.

② 학습자 특성 파악하기

교육내용을 선택한 다음에는 학습자가 그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로 알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일이 필요하다. 평소에 대화를 통해 학생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파악해 놓는 것 또한 중요하다.

- 성적 호기심이 많은 나이의 청소년들이다.
-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쾌락주의적 성의식이 형성되어 있다.
-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은 대체로 피임교육이다. 따라서 피임교육 위주의 성교육만 받았다.
- 성과 사랑, 생명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과 책임 의식이 결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 정결을 구시대적 가치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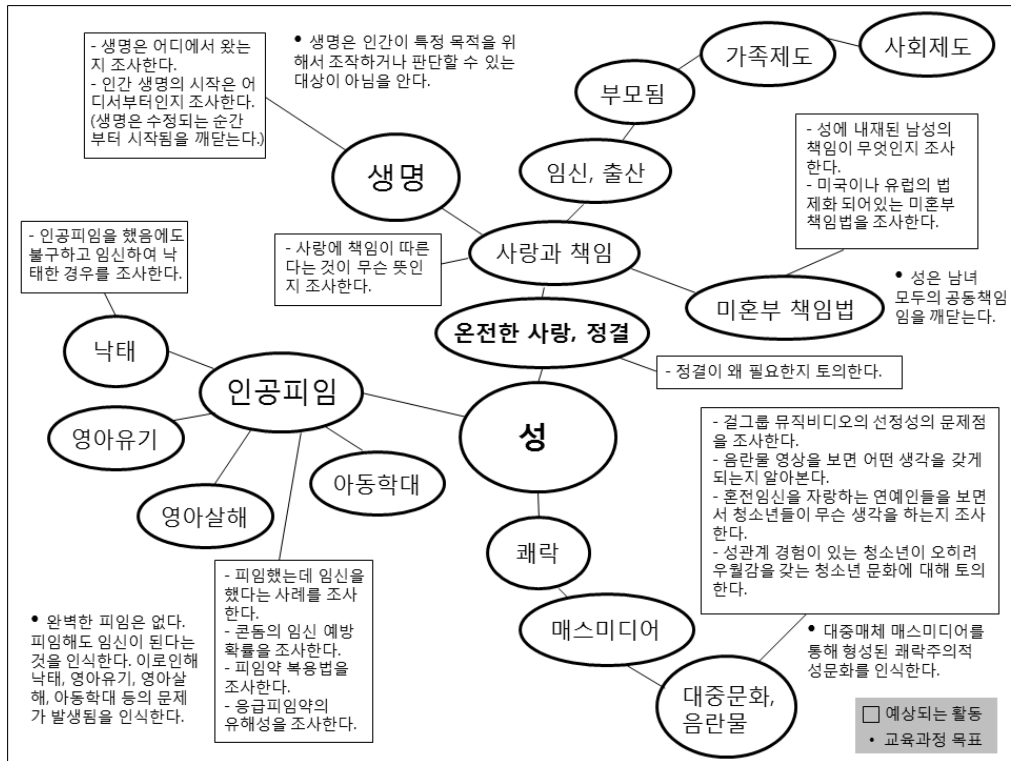
③ 잠정적 문제선정과 문제지도 그리기

교육과정과 관련이 있고 학생들이 흥미 있어 하는 내용 중에 최근 사회 또는 학교에서 이슈가 되는 것, 과거의 사건이나 미래의 가능성 있는 일들, 혹은 문학작품 속의 내용에서 문제를 잠정적으로 찾아낸다. 그런 다음 그 문제를 교육과정 내용 및 활동들과 연관지어 보는 지도를 그려 보아 문제로서의 타당성을 검토해 본다.

(1) 잠정적 문제선정하기

매년 청소년들의 미혼모 발생과 낙태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성관계라는 문턱을 쉽게 넘는 세대가 등장하여 임신, 낙태, 미혼모, 영아유기, 영아살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 이유는 청소년들에게 쾌락중심적 성의식을 형성시켜주는 미디어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문제인 거시적 생명 파괴 현상을 단순한 기계적 방법과 화학적 방법으로 쉽게 막을 수 있다는 담론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정결을 구시대적 가치로 폄하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공피임 교육이 궁극적으로 생명을 지키는 책임의 성교육이 될 수 있을까? 온전한 인격체의 사랑이란 무엇일까?

(2) 문제지도 그리기



〈그림 1〉 ‘성의 전체성’에 대한 문제지도

④ 역할과 상황 설정하기

학습자가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학습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문제 안에 문제를 경험하고 해결해야 하는 당사자의 역할과 처한 상황을 제시한다.

- 역할: 남자친구에게 성관계를 강요받는 여자 청소년

- 상황: 매년 청소년들의 미혼모 발생과 낙태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미디어 시대에 대중문화와 음란물 등의 자극적인 상업적 영상물들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확산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배운다는 의식조차 없이 왜곡된 성을 배웠지만, 우리 사회는 이 과정에서 적절한 교육적 개입이나 사회적 대응을 전혀 하지 못했다. 현실에서 자신의 문제로 관련 지을 수 있는 ‘성’의 문제를 제시하여 청소년들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책임의식을 내면화 할 수 있도록 과정을 구성한다.

⑤ 문제 작성하기

적절한 역할과 상황을 설정한 다음에는 학생들에게 어떤 형태와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을지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시나리오를 구성함으로써 문제개발이 완성된다.

- (1) 전 16살 여자인데요.
 긴 고민 끝에 남친이랑 성관계를 하기로 했는데..
 저 처음인데 야동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면 되나요?
 괜찮겠죠? 좀 무섭긴 해요.
 콘돔 말고도 피임 방법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 (2) 전 18살 남자인데요.
 그동안 책임을 회피했는데..
 애는 크고 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게 힘드네요.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2) 교수-학습과 평가과정²⁵⁾

문제중심학습의 교수-학습 과정은 ‘문제제시부터 시작하여 문제해결 및 평가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단계들을 거친다.

① 문제 만나기

문제중심학습은 문제를 만나는 과정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문제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동기유발’의 하위과정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이어서 ‘문제제시’를 하고, 문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학생의 입장에서 확인하는 ‘문제파악’의 단계가 필요하다.

(1) 동기유발 및 문제제시

- 문제제시에 앞서서 ‘동기유발’을 위해 동영상(도망친 미혼부 이야기, 2분)을 제시한다.
- 문제 상황을 학생들에게 제시한다.(Daum 지식 사이트의 고민Q&A ‘청소년고민상담-10대 성고민’ 예시를 제시)²⁶⁾

(2) 문제파악을 위한 발문

- 내가 문제 속의 여자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 / 내가 동영상 속의 남자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
- 이 문제의 시작점은 어디에 있을까?

25) 조연순, 앞의 글, 100-116쪽. 참고.

26) http://k.daum.net/qna/list.html?category_id=QPR, ‘남친이랑하기로했어요. 피임방법좀요!’

-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적어 보세요.

② 문제해결 계획세우기

문제를 이해한 후에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때 문제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것’,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알아야 할 것’, 그것들을 ‘알아내는 방법’에 대한 도표를 만든다.

〈표 2〉 문제해결 계획표

알고 있는 것	알아야 할 것	알아내는 방법
· 청소년들의 미혼모 발생과 낙태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 인공피임 방법으로 콘돔이나 피임약을 사용한다.	· 미디어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배운 성 의식 · 생명의 가치 · 선진국의 성교육 사례/ 미국이나 유럽의 미혼부 책임 법안 · 성에서 정결의 필요성	· 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성의식에 대한 토의 · 생명에 대한 자료 검색 및 관련 동영상 조사 / 생명에 대한 토론 · 선진국의 성교육 사례 검색/ 동영상 자료 조사(지식채널의 ‘그 남자의 권리’ 등) / 미혼부 책임법에 관련된 뉴스·기사 검색 · 정결의 필요성에 대한 토의 · 전문가 방문 혹은 초청

③ 탐색 및 재탐색하기

탐색과정은 ‘더 알아야 할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며, 바로 학교 교육과정에서 의도하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학습자들이 찾고 배워 가는 의미 있는 단계다. 문제해결 계획표에 따라 탐색과정을 마친 다음에는 더 탐색할 것이 없는지 점검하는 재탐색과정이 필요하다.

〈표 3〉 문제를 위한 탐색 및 재탐색 과정

탐색과정	탐색활동
[탐색1] 미디어를 통한 성 의식 형성 문제 -1차시	· 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성의식에 대한 토의(소집단)
[탐색2] 생명의 가치 -2차시	· 인공피임의 한계, 낙태, 미혼모에 대한 자료 검색 및 토의/ 생명에 대한 자료 검색 및 관련 동영상 조사(소집단)
[탐색3] 선진국의 성교육 사례/ 생명에 대한 책임: 미혼부 책임법 -3차시	· 선진국의 성교육 사례 검색/ 미혼부 책임법에 관련된 뉴스·기사 검색 및 토의(소집단)
[탐색4] 성에서 정결의 필요성 -4차시	· 정결의 필요성에 대한 토의(소집단)
[재탐색] 미혼부 책임법 반대의 이유 -5차시	· 전문가 방문 혹은 초청(전체)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의 지식 습득과 함께 비판적 사고력이 길러진다.

④ 해결책 고안하기

탐색과정과 재탐색과정을 통해 찾고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때 학습자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협동능력이 증진되고, 다양한 해결책을 계획함으로써 학생들의 문제해결력이 길러진다.

⑤ 발표 및 평가하기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고안한 해결책을 학생들의 수준과 기호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학생들의 창의성이 길러지게 된다. 또한 학생들이 발표하였던 해결책과 해결과정에 대하여 자기평가와 상호평가를 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 줄 수 있다.

(1) 발표: 학생들의 제작물(PPT, 역할극, UCC 동영상 등)을 발표한다.

(2) 평가방법: 조별발표 40% + 포트폴리오 20% + 개인보고서(소감문) 10% +

관찰평가(tutor) 10% + 동료평가 10% + 자기평가 10%

* 개인보고서(소감문) : 개인의 체험과 깨달음이 곁들여진 보고서 (A4 2장 이내)

〈표 4〉 문제에 대한 결과평가표

다른 팀의 발표를 보면서 평가해 보기 (결과평가)	잘함	보통	미흡
1. 미디어(대중문화)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쾌락주의적 성의식을 형성 했음을 설명하였다.			
2. 성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거대한 연속체로 결합되어 있음을 설명하였다.			
3. 피임교육이 성교육의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였다.			
4. 온전한 성교육이 사회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생명에 대한 책임으로써 미혼부 책임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5. 성에서의 정결의 필요성을 잘 설명하였다.			

〈표 5〉 문제에 대한 과정평가표

자기 팀의 학습과정 평가해 보기 (과정평가)	잘함	보통	미흡
1. 우리 팀은 역할분담을 잘하였다.			
2. 우리 팀은 맡은 역할을 모두 열심히 수행하였다.			
3. 우리 팀은 모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V. 결론

가톨릭 중립학교의 종교교육에 있어서 생명윤리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될 것이다. 바른 덕성과 가치관을 가진 신앙인으로서 미래의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생명윤리교육은 피해갈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생명윤리교육은 종교교육의 일반 원칙과 교육목표에 입각하여 현대의 교육이론과 방법론에 따라 수행될 때 가장 큰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생명윤리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교육 이론을 소개하였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의 예를 들어 문제중심학습 모형을 생명윤리교육에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생명윤리교육에는 다양한 교육 내용이 포함되고,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이 사용되며, 다양한 배경의 교사들이 참여하므로 무엇보다 교육과정을 잘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교육과정의 개발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의 공유를 통해 꾸준히 노력한다면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학교간에 개발된 교육 콘텐츠와 교육과정,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 등을 공유하고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좋은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과정이 애초 설정한 교육목표를 어느 정도나 효과적으로 달성했는지를 파악하는 평가 역시 매우 중요하다. 개별 학습자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전체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그리고 좋은 평가 도구의 개발도 필요한데 인지적 영역이 아닌 정의적 영역을 측정하는 평가는 역시 쉽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종교교육 내에서의 생명윤리교육이 본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영성교육과의 협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생명의 근원적 가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명윤리의 초석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논의도 역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구분만. 「공교육에서 가톨릭 학교의 종교교육 방향 모색」 『기독교교육정보』 제30집(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2011).
- 김경희, 조연순. 「문제중심학습(PBL)의 수업 단계별 학습활동의 특성과 교육적 의미 탐색-초등 과학 수업을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 제21권(한국초등교육학회, 2008).
- 김소영. 「구성주의 학습 환경에 적합한 평가전략: 참평가와 즉각적 피드백」 『교육공학연구』 제23권(서울: 한국교육공학학회, 2007).
- 김평만 외. 「의학교육에서 가톨릭 정신의 구현-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음니버스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인간연구』 제21호(부천: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11).
- 박인옥 외. 「생명윤리와 생명윤리교육에 대한 중·고등학교 교사의 인식 조사」 『한국생물교육학회지』 제33권(한국생물교육학회, 2005).
- 박지영 외. 「교과서에 제시된 생명윤리교육 실태-국어, 도덕, 사회, 과학, 기술·가정 교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평가연구』 제8권(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 성태제. 『현대교육평가 4판』. 서울: 학지사. 2014
- 양재섭, 구미정. 「대학교육현장에서의 생명윤리교육: 대구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생명윤리』 제10권(서울: 한국생명윤리학회, 2009).
- 유경동. 「생명윤리의 공정영역과 종교의 역할」 『생명윤리정책연구』 제2권(서울: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2008).
- 이동익. 『생명, 인간의 도구인가』. 서울: 바오로딸. 2004
- 이상목. 「가톨릭의 생명윤리」 『철학논총』 제34집(새한철학회, 2003).
- 장인실 외. 『교육과정 - 기초·원리·쟁점』. 서울: 학지사. 2007
- 조규만. 「신학적 관점에서 본 생명」 『생명윤리』 제2권(서울: 한국생명윤리학회, 2001)
- 조연순 외. 「문제중심학습(PBL)을 위한 문제개발 절차 연구: 초등과학 교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제21권(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3)
- 조연순. 『문제중심학습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2006
- 조주인 외. 「생명윤리 주제를 활용한 토의 수업의 효과」 『한국생물교육학회지』 제33권(한국생물교육학회, 2005).
- 추정완. 「청소년을 위한 생명윤리교육 내용에 관한 연구」 『생명윤리정책연구』 제2권(서울: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2008).
- 최준규. 「가톨릭계 학교의 종교교육: 개념, 목적, 방법」 『종교교육학연구』 제21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5).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제삼천년기의 문턱에 서있는 가톨릭 학교」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제13호.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0
- Motu Proprio “Vitae mysterium”. *Pope John Paul II establishes the Pontical Academy for Life*. L’Osservatore Romano, N. 10. 1994.
- Stufflebeam, L. D. *The relevance of the CIPP evaluation model for educational accountability*.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Administrators. 1971.

원고접수일: 2014년 5월 22일 심사일: 2014년 7월 1일 게재확정일: 2014년 7월 14일

연구자소개: 김나진

- ① 전공: 교육측정및평가 / 소속: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 ② 관심영역: 의학교육, 준거설정, 수행평가, 문제중심학습(PBL)
 - ③ E-mail: knj@catholic.ac.kr
-

Abstract

Bioethics and Religious Education of the Catholic Schools: Focusing on Problem Based Learning Model Development

Kim, NaJi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College of Medicine

This study has a purpose of proposing the overall direction and specific methods on how the bioethics education can be enforced as a part of the religious education of the religious schools. Especially the bioethics education in adolescence education should (1) have awareness on the importance of life and proper life perspective and (2) should have a healthy-ego-identity and self-esteem and (3) the awareness and sensitivity to criticize various problems caused by the science technology, especially the life science technology, should be nurtured.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bioethics education, it is important to well develop the curriculum. Therefore in this study, the general education theory that can be applied to the bioethics education was introduced, and with an example of “sexuality education course of life and responsibility” targeting the adolescents, a problem based learning model that can be applied to the bioethics education was proposed. In addition, in order for the bioethics education within the religious education to achieve the inherent outcome, ultimately, cooperation should be made with the spiritual education.

Key words: Bioethics, Religious Education, Religious Education of the Catholic Schools, Problem based Learning, Sexuality Education for Adolescents